

프로그램

- 사회: 이정주 -

1. 교방무

출연진 | 정숙희 이현희 이정민

한국의 전통무용인 '교방무'는 동작이 복잡하고 즉흥성을 띠고 있어 고도의 기량이 있어야 하는 작품이다. 신비롭고 섬세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여성의 아름다운 자태와 섬세함을 표현하고 있다.

2. 가야금병창 '신사철가, 응혜야'

출연진 | 가야금병창 이정주 고혜수 장단 도경한

'가야금병창'은 단가나 판소리의 한 대목을 부르면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작품으로 가야금 선율에 맞게 기억화하거나, 가야금의 선율을 노래의 선율에 제주(齊奏)한 것이 특징이다. '신사철가'는 인생을 자연의 변화, 춘하추동에 빗대어 노래한 신민요이며 '응혜야'는 보리타작을 할 때 도리깨질을 하면서 불리던 민요이다.

3. 장고춤

출연진 | 이현희

'장고춤'은 몸에 장구를 메고 여러 장단에 맞춰 추는 춤으로 장구놀이 중 재미있는 부분들을 각색하여 무대작품으로 구성하였다. 민요에 맞추어 장구를 치면서 흥청거리며 춤을 추다가 빠른 설장구 가락으로 신명 나게 마무리한다.

4. 국악가요 '쑥대머리, 난감하네'

출연진 | 허승희 이정주

국악가요 '쑥대머리'는 판소리 춘향가에서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옥중에서 몽룡을 그리워하며 부른 옥중비가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곡이다. 그리고 '난감하네'는 판소리 수궁가를 모티브로 만든 곡으로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옥지로 가야 하는 별주부의 마음을 코믹하게 표현한 곡이다.

5. 사랑무

출연진 | 정숙희 최민준

'사랑무'는 남원 퇴기 월매의 딸 성춘향과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의 신분을 뛰어 넘는 내용의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점차 무르익어가는 과정을 한국무용의 선과 멋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6. 남도민요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출연진 | 김정미 허승희 고혜수

남도민요는 전라도와 충청남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경남 서남부지방의 민요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전라도 지방의 민요를 일컫는다. '성주풀이'는 집안의 무사태평과 번영을 빌기 위해 근거리장단에 맞춰 부르는 민요이며 '진도 아리랑'은 남도지방의 대표적인 아리랑으로 음악적 구조나 특성이 잘 담겨 있는 향토민요이다.

7. 판굿

출연진 | 최 최웅식 정 서현아 장구 전미희 북 안태호 태평소 이선희

'판굿'은 쇠와 장구, 북, 징이 어우러진 연주와 놀이의 종합예술로 열을 지어 진풀이를 벌인 뒤 갖가지 놀이를 순서대로 짜서 판놀음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되는 작품이다.

プログラム

- 司会: イ・ジョンジュ -

1. 教坊舞

韓国の伝統舞踊「教坊舞(キョバンム)」は、動作が複雑で即興性を帯びているため、高度の技量を求められる作品。神秘的で繊細な雰囲気を出しながら、女性の美しい姿勢と繊細さを表現している。
出演陣 | ジョン・スクヒ、イ・ヒョンヒ、イ・ジョンミン

2. 伽耶琴並唱「新四節歌」、「オンヘヤ」

伽耶琴並唱(カヤグムピョンチャン)は、短い歌やパンソリ(朝鮮の伝統的民俗芸能)の一節を歌いながら、伽耶琴を演奏する作品で、伽耶琴の旋律に合わせて娯楽化したり、伽耶琴を歌の旋律で斉奏するのが特徴。「新四節歌」は、人生を自然の変化である春夏秋冬に例えて歌った新民謡。「オンヘヤ」は、麦打ちを行うとき、穀竿で脱穀しながら謡った民謡である。
出演陣 | 伽耶琴並唱 イ・ジョンジュ、コ・ヘス 拍子 チェ・ト・ギョンハン

3. 杖鼓舞

杖鼓舞(チャンゴチュム)は、体に杖鼓をつけて、さまざまなリズムに合わせて踊る舞踊で、杖鼓演奏の中から面白い部分を脚色して舞台作品として構成。民謡に合わせて杖鼓を打ちながら、興に乗じて舞う。テンポの速いソルチャング(打ち手)の調べとともに、一層興が高まり高揚を迎えて曲を終える。
出演陣 | イ・ヒョンヒ

4. 国楽歌謡「スツテモリ」、「ナンガムハネ」

国楽歌謡「スツテモリ(鐘頭)」は、パンソリ「春香歌」の中で春香が役人の妾になれという要求を断ったため投獄され、獄中で夫の夢龍(モンリョン)を想いながら歌った獄中悲歌を現代的に編曲したもの。そして「ナンガムハネ(困ったねえ)」は、パンソリの「水宮歌」をモチーフにした曲で、竜王の病を治す兎の肝を手に入れるため、一度も行ったことのない陸地へと行か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召使スッポン(曠主簿_ビョルチュボ)の気持ちをコミックに表現した曲。
出演陣 | ホ・スンヒ、イ・ジョンジュ

5. サラン舞

「サラン舞(サランム: 愛の舞)」は、南原の妓生(朝鮮の伝統的芸妓)から身を退いた月梅の娘である成春香(ソン・チュニャン)と南原府使の息子である李夢龍(イ・モンリョン)が身分の違いを超えて結ばれるパンソリ「春香歌」中、春香と李夢龍の愛がだんだんと高まっていく過程を韓国舞踊の線と粋で表現した作品。
出演陣 | ジョン・スクヒ、チェ・ミンジュン

6. 南道民謡「ソングジュプリ」、「珍島アリラン」

南道民謡は、全羅道と忠清道の一部地域、そして慶尚南道の西南部地方の民謡を指している言葉だが、通常は全羅南道地方の民謡を称することが多い。「ソングジュプリ」は家内安全と泰平・繁栄を願って一定の伝統的な拍子に合わせて歌う民謡。「珍島アリラン」は、南道地方の代表的なアリランで音楽的な構造と特性がよく込められている郷土民謡である。
出演陣 | キム・ジョンミ、ホ・スンヒ、コ・ヘス

7. パングッ

「パングッ」は、鉦と鼓、太鼓、銅鑼が織りなす演奏と演劇の総合芸術であり、列を成してジンプリを行ったあと、それぞれの演劇を順番に組んでいき、パンノルム(広場を舞台にした演劇)を繰り広げる形態で行われる作品。
出演陣 | 鉦 チェ・ウンシク 銅鑼 ソ・ヒョンア 鼓 ジョン・ミヒ 太鼓 アン・テホ 太平簫 イ・ソニ